



**첫 삽 뜨는 광주형일자리 자동차 공장** 이용섭 광주시장,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이원희 현대자동차 대표이사 등이 26일 오전 광주 광산구 삼계동 빛그린국가산업단지에서 열린 광주글로벌모터스(GGM) 완성차공장 기공식에서 삽 뜨기를 하고 있다. 공장은 2021년 4월30일 완공을 목표로 빛그린산단 내 1공구 일대에 건축면적 8만6215㎡, 연면적 11만7335㎡ 규모로 들어선다.

## 23년 만에 국내 첫 완성차공장 착공...광주형 일자리 '본격화'

### 빛그린산단서 광주글로벌모터스 기공식 노동계 "노사 상생 정신 사라졌다"...불참

사회대통합형 노사상생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본격화하면서 23년 만에 처음으로 국내에서 역사적인 자동차 공장 착공식과 함께 본격적인 건립에 들어갔다. 광주시는 26일 빛그린국가산업단지에서 광주형 일자리 모델이 적용되는 ㈜광주글로벌모터스 자동차공장 기공식을 개최했다. 기공식에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 등 중앙부처 주요 인사와 박광태 광주글로벌모터스 대표이사, 이용섭 광주시장, 이원희 현대자동차 대표이사, 송중욱 광주은행장 등 주주, 지역 노사민정위원회 위원, 국회의원, 시민 등 400여명이 참석해 기공을 축하했다. '전통문화연구회 열쑈' 공연팀의 식전 축하공연에 이어 국민의례와 자동차모델 역사 영상, 축사, 기념사, 삽뜨기 퍼포먼스,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광주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작됐지만, 이제 한국경제의 미래가 달린 대한민국의 희망이 됐다"고 말했다. 또 "지금까지처럼 노·사·민·정이 합심해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봉산개도 우수개교'의 각오로 담대하게 나가겠다"고 밝혔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오늘 기공식을 시작으로 공장 건설과 제품 생산이 차질없이 이어질 경우 자동차 산업 육성 등 많은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근로자들의 양보와 협조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형 일자리사업은 지역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한국경제가 직면해 있는 고비용 저효율의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한국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 패러다임으로 사회적 대타협을 기반으로 한 노사상생 일자리 모델이다. 지난 1월31일 광주시와 현대차간 투자협약 체결과 이후 투자자 유치에 마치고 지난 9월 설립된 ㈜광주글로벌모터스는 자동차 공장을 연내 착공함으로써 계획된 일정대로 사업이 순항할 수 있게 됐다. 광주글로벌모터스는 지난 17일 현대엔지니어링을 시공사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해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18일 공장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23일 건축허가를 완료했다.

광주글로벌모터스 공장은 빛그린산단 내 부지 60만4338㎡(옛18.3만평)에 건물 연면적 10만9232㎡로 들어선다. 2021년 연간 10만대 규모로 준공하게 되며 준공 이후 시험생산을 거쳐 2021년 하반기에 양산할 계획이다. 광주글로벌모터스는 팀장급 직원 채용을 시작으로 10만대 양산 기준 약 1000여명의 인력을 채용할 계획이다. 간접 고용효과 포함 약 1만2000여명에 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규모 생산직 인력 채용은 공

장 준공과 시험 생산 일정에 맞춰 단계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자동차공장은 미래 자동차 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친환경, 디지털, 유연화를 3대 컨셉으로 해 건설한다는 방침이다. 자동차공장 신축공사에 총 하도급 공사 금액의 60% 이상(직접공사비)을 광주·전남지역 소재 업체(시공, 건설자재, 인력, 장비 등 포함)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광주형 일자리 완성차공장은 빛그린 산단에 연 10만대 규모의 생산라인을 구축하고 정규직 1000여

명을 고용해 2021년 하반기부터 경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현대차로부터 위탁받아 생산하는 사업이다. 광주시, 현대차, 광주은행, 지역 기업 등 36개사가 출자한 2300억원, 국책은행인 산업은행 등 금융권으로부터 빌린 3454억원 등 총 5754억원이 투입된다. 한편, 이날 기공식에는 노사민정의 한축인 노동계가 불참했다. 노동계는 '광주형 일자리' 추진 과정에서 노사 상생 정신이 사라졌다고 비판하고 있다.

서은홍 기자

### '호남 기반' 대안신당 29일 광주시당 창당대회 개최



대안신당이 29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광역시당 창당대

회'를 개최한다. 대안신당에 따르면 이날 광주시당 창당대회에는 천정배·장병완·최경환 의원과 총선 출마 예정자인 김성환·김명진 예비후보, 당원·시민 1000여명이 참석한다.

창당대회에서는 최경환 의원(광주 북구)이 광주시당위원장으로 선출될 예정이다. 최 의원은 그동안 대안신당 조직위원장을 맡아 전국을 돌며 창당 준비에 박차를 가해왔고 현재 대안신당 수석대변인을 맡고 있다. 대안신당은 창당의 목표를 제3정치세력의 결집과 통합을 통해

내년 21대 총선에서 승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제3정치세력의 통합을 위한 밑거름이 되겠다는 의지를 밝힐 방침이다. 한편 대안신당은 지난 20일 서울시장 창당대회를 개최했다. 27일 부산, 29일 광주에 이어 경기, 전남, 전북, 경북 등 각 시도당 창당대회를 완료하고 내년 1월 12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대안신당 중앙당 창당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 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게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이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자본권력의 횡포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독자생존 체제를 구축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작은 변화를 시작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